

특별기획

군산시, 효율적 업무통합관리 필요

군산시 리모델링참여 건축사 풀 모집

익산패션주얼리연구개발센터

일본 산요 쇼카이와 업무협약

익산패션주얼리연구개발센터센터장 김경숙은 지난 10일 센터 회의실에서 일본 산요 쇼카이(SANYO SHOKAI(대표 시모마 사키[下田雅]))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요 쇼카이는 도쿄에서 가방, 핸드백 부품류 제조 및 액세서리 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익산시와 산요 쇼카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품질 주얼리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약속했다. 앞으로 익산패션주얼리연구개발센터는 이온도금주얼리 코팅 장비를 활용하여 일본기업이 원하는 색상의 도금을 개발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센터 연구 분야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이 체결된 후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값진 성과이다.

김경숙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익산패션주얼리연구개발센터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주얼리 연구개발과 향후 주얼리산업에 입주할 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패션주얼리연구개발센터는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2016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공모를 준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역성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내용으로 한다.

익산=정영원 기자

문화예술과 근대문화도시조성·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 중부

군산시의 업무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에 걸쳐 총 6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월명동 일원에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원도심 일원의 노후건축물을 정리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관련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이 '와 유사한 사업으로 관광진흥과는 '근대문화도시활성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까지 200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의 사업비를 들여 월명동 일원 근대건축 보전·정비와 연계한 주거재생활성사업과 상가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원도심을 포함한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의 편익시설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서 간 중복되는 업무가 발생하면서 양 부서 간 협의는 물론 업무지연의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부서에서도 마

찬가지로 불편일률적으로 빚어지고 있다.

군산시 CCTV관련 업무의 경우 총무과(방범용)와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행복과(도심공원) 등 3개 부서에서 나눠져 있으며, CCTV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뤄지고 있다.

관련된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세우고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니 CCTV를 교체 수리, 점검하려면 3개과를 거쳐야한다.

더욱이 CCTV를 가리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산림복지과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기호성·오상운 대표는 "익산시에 분사를 두고 있어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기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대창건설, 익산시 희망복지지원사업 1억 쾌척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어려운 이웃 위로

(주)대창건설(대표이사 기호성·오상운)이 지난 10일 익산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복지지원사업에 현금 1억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날 오전 시청 시청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기호성·오상운 대표가 참석했다.

기호성·오상운 대표는 "익산시에 분사를 두고 있어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기탁을 하게 됐

다. 이번 기탁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정현을 시장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통 큰 기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한 금액은 익산시 어려운 가정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대창건설은 1986년도에 익

산시 마당에서 회사를 설립해 서울지사, 경기지사와 세종지사 3곳이 있으며 토목, 건축(시행시공), 전기, 문화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익산시에서는 서동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모현 도서관 임대형 입자사업, 익산 우수저류설치공사, 왕궁리 유적지정관 신축공사 등 7월 초 착공할 예정이다.

/익산=정영원 기자

국내 북한·통일 전문가들이 원광대에 총집결한다.

(사)통일아카데미와 (사)통일미디어가 오는 6월 27~30일까지 원광대에서 주최하는 '청년'이 설계하는 미래한반도 U-플래너 3기' 아카데미에 류길재 전 통일부장관 홍진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이사 박상봉 전 통일교육원장, 김형수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자 등 국내 북한·통일 전문가 10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사흘간 진행되는 아카데미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올바른 방향 한반도 통일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과 과제, 북한인권 실태 등에 대해 릴레이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7월 1~2일 이틀에 걸쳐 DMZ 안보견학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며,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손관주 남북한재단 이사장의 특강도 예정돼 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탐방 주제발표(7월 말 예정)를 진행하며, 우수팀에게는 통일부 장관표,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상 원광대 총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를 주최한 강삼삼 통일아카데미 대표는 "지나해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 2000들을 대상으로 U-플래너 1, 2기를 진행했다"며, "지방 대학생들은 북한인권과 통일에 대한 아카데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고민이 있었다고 원광대에서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호남지역에서 아카데미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원광대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참가자들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북한인권과 통일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U-플래너 3기' 아카데미 신청은 홈페이지(ur-academy.co.kr)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uracademy@naver.com)로 6월 23일까지 접수하거나, 사무실(02-889-747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영원 기자

군산시가 다음달 22일까지 2016 경제총조사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고용, 생산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제 분야 최대 규모의 전수 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은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로 군산시 내에는 약 2만5400여개의 사업체가 대상이다.

대상 사업체는 인터넷조사와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제총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로 국가 주요정책과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군산시, 내달 22일까지 경제총조사 실시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